

Governance Opinion

< 아름다운 기부와 배움는 주주 >

기업의 존재 이유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이윤의 추구이다. 물론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기업은 역시 이윤 추구하고 이익 극대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상장회사와 같이 주식이 수많은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기업에게 최고의 미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고의 이익을 달성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일 것이다.

기업의 존재 목적

일신석재는 1971년 2월 설립되어 198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서 깊은 회사이다. 주요 사업은 회사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축석재 가공 및 판매 등이다. 일신석재는 선원건설, 세계일보, 일화 등과 함께 통일교로 잘 알려진 통일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최대주주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회유지재단으로 약 41.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회유지재단은 1954년 고 문선명 총재가 창설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실시하는 선교 및 교육사업과 동 협회의 이념 구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통일그룹의 선원건설은 일신석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 경영권자로부터 매입했으며, 이듬해인 2007년 5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회유지재단에 재차 매각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신석재는 2012년 말 총 자산 규모가 약 765억원으로 중견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매출은 큰 변동 없이 400 ~ 600억원 수준이며, 이익률은 크지 않아 순이익은 연간 1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지만 최근 1년간의 주가는 1천원 아래에서 주로 형성되었다.(액면가 500원)

일신석재는 최근 사업연도 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3 반기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매출	18,073	39,558	58,053	45,430	50,252	56,549	45,799	40,275
영업이익	82	1,074	1,406	1,525	990	1,471	1,207	-2,426
순이익	-278	816	803	478	1,968	599	735	-4,919

이처럼 일신석재는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신석재는 석재업체 중 유일하게 상장회사이며, 화강석 최대 생산단지인 경기도 포천에 연간 생산량 약 1,700,000㎡ 규모의 석산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이익 규모가 크지 않아 배당 등의 형태로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자연스럽게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신석재는 2006년 이래로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업 외형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다. 2006년 일신석재의 총 자산 규모는 약 544억원 수준이었는데 2013년 반기말 기준으로 여전히 75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외형 확대나 매출 증가 등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도 이뤄지지 못하는데다가 배당과 같은 이익 환원 역시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석재는 매년 빠지지 않고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3 반기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매출	18,073	39,558	58,053	45,430	50,252	56,549	45,799	40,275
영업이익	82	1,074	1,406	1,525	990	1,471	1,207	-2,426
순이익	-278	816	803	478	1,968	599	735	-4,919
기부금	216	249	238	356	330	331	429	286

일신석재는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변동과는 무관하게 2006년부터 매년 3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기부라는 것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값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신석재와 같이 이익률이 높지 않고 순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3억원 수준의 기부금은 기업 가치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13 반기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매출		18,073	39,558	58,053	45,430	50,252	56,549	45,799	40,275
영업이익		82	1,074	1,406	1,525	990	1,471	1,207	-2,426
순이익		-278	816	803	478	1,968	599	735	-4,919
기부금		216	249	238	356	330	331	429	286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	1.20	0.63	0.41	0.78	0.66	0.59	0.94	0.71
영업이익		263.41	23.18	16.93	23.34	33.33	22.50	35.54	-11.79
순이익		-77.70	30.51	29.64	74.48	16.77	55.26	58.37	-5.81

일신석재의 기부금 비율은 매출 대비 했을 때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대비 평균 25%, 그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평균 44% 수준(2013년 반기와 2006년 제외)으로 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3년 반기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지출했다. 기부금은 기타비용으로 계상되어 영업이익에서 차감된다. 그러므로 수치상 2013년 반기 당기순손실 발생 원인이 기부금 지출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기부금 216백만원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2013년 반기 일신석재의 당기순손실은 -278백만원에서 -62백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2년 말 기준 일신석재의 총 소액주주 수는 10,172명이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는 45,452,790주이다. 평균 한 명의 소액주주가 약 4,468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기부금을 배당금의 형태로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한 명의 소액주주에게 매년 약 2만원 내외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업의 자원과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이해관계자는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 경영자, 그리고 사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의 창출이고 제1의 이해관계자는 주주이다. 이윤 창출보다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 그리고 주주의 권익보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 앞선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닌 공익단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위대한 기업은 본디 목적과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다.